

Oral health and the war crisis

Dong Hun Han

Editor in Chief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It is a terrifying world. Nobody knows where the US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nd nuclear tests will end. Both sides assert that they are fully prepared to fight a war. In this Autumn, our uneasiness is increased by the fact that we live in Korea.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watching a war from another country, on TV or the Internet, and to experiencing war in the place where we live. War causes a deep and long-lasting injury to the bodies.

A recent study found that the level of health in 2010 was reduced for people born before 1951, when the Korean War was at its peak. In other studies, the edentulous risk of the socioeconomic sub-strata among 1946-1962 births was higher than that among 1920-1945 births. This leads to the suspicion that the experience of warfare during early childhood can increase tooth loss in the elderly. War can have a direct impact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hildren, because it leads to malnutrition and the destruction of health care systems. Moreover, the experiences of infants and children in war can affect their health by causing problems with their ability to cope with the environment, even in adulthood and old age.

It may not be easy to agree with the opinion that fear of war or war may have an impact on oral health. However, since war-related experiences clearly can affect oral health over time, efforts to maintain peace can be one way to protect the oral health of a population at risk from war and massive violence.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oral health of the population should be interested in deterring war.

September 2017

전쟁의 위기와 구강건강

한동헌

대한구강보건학회 편집이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운 세상이다. 미국과 북한 양국 정상 사이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친 말싸움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가을이다. 남의 나라 전쟁을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쟁을 겪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전쟁은 우리의 몸에도 상처를 깊고 오랜동안 남기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는 한국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전쟁 초기에 어머니 배 속에 있었던 1951년 출생자들의 2010년 현재 건강 수준이 1951년 전후 출생자들의 2010년 현재 건강 수준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에서 1946-1962년 출생자 중 사회경제적 하위층의 무치악 위험은 1920-1945년 출생자 중 사회경제적 하위층의 무치악 위험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영유아기 전쟁 경험이 장노년기 치아상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한다.

전쟁은 영양 부족과 보건의료체계의 파괴로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영유아기 전쟁 경험은 시간이 흘러 성인 및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 몸의 환경 대처 능력에 문제를 일으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쟁 혹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구강보건의 문제라는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경험은 시간이 흘러서도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전쟁과 대규모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인구집단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 인구집단의 구강건강에 관심 있는 자가 전쟁 역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2017. 9.